

#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제협력 분과위 12차 회의 결과

(‘21.12.20.(월), 소통협력관)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12.14.(화) 오후 4시~6시 10분 / 화상회의 개최
- (참석자)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분과위 간사 및 위원,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 선우세원 사무관, 소통협력담당관 외 담당자 등(붙임2)
- (안건)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 선우세원 사무관 발표 실시), △2022년 국제협력분과위 업무 추진 계획 등

## □ 주요 논의내용 (상세내용 붙임1)

- ①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은 금년 7.7.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도국의 녹색 회복을 지원하고, 그린 뉴딜의 글로벌 확산 지원을 위한 목적에서 동 전략이 마련되었음.
  - 동 전략은 △개도국의 여건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그린 뉴딜 생태계 구축, △그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 확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국제분과 위원회 차원에서 파악코자 하는 사항은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이 국외 감축 실적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현재 동 전략에 그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관 부처 역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에 따라, 동 문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임.
  - 또한,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개도국의 기후 적응 관련 사업 등은 UNFCCC 시스템 下 국가보고서 등에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이행 과정에서 “UNFCCC 기후 협상 및 국가보고서” 내 실적으로 활용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은 기후나 환경 방면의 ODA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ODA 추진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바,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일 주무부처 사무관이 참석하여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의 개요를 설명해 준 것이 동 전략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이행 과정에서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이 국외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린뉴딜 ODA 추진 성과가 UNFCCC 국가보고서 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린뉴딜 ODA 추진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적 계산 등 방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

② (2022년 분과위 업무 계획) 금년 5.29.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국제협력 분과위의 주된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 상향안 검토 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바, 다양한 방식의 업무 발굴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상향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가 이미 발표된 만큼, 2022년의 국제협력 분과위의 업무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각 위원 차원에서도 차기회의 개최 이전 업무 분야 발굴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임.
- '22.3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협력 분과위에서는 국외 감축을 주요이슈 중 하나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밖에도 '기본법' 및 '시행령' 내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금년 COP26에서 대통령님께서 청년 기후 서밋 연례 개최를 제안하신 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 기후 무대에서의 역할과 참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제협력 분과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기후 협력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탄소중립 관련 국제협력 유관사항 검토(국외 감축, 그린뉴딜 ODA, 기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위원회와의 협력 추진 등)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의 참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협력 분과위가 타 분과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의 참석을 요청하기 쉽지않은 경우가 있는 바, 향후 타 분과위와의 공동 분과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붙임 : 1. 참석자별 발언 요지  
2. 참석자 명단. 끝.

□ **안건 1호 :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 토의**

구 분	발언요지
○○○	<p><b>「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 개요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은 금년 7.7.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코로나19 이후 녹색 회복이 필요한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메시지 발신도 있었던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녹색 분야 ODA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음.</li> <li>- 우리나라가 추진한 ODA 중 녹색 분야 비중이 '15~'19년 평균 19.6%로, OECD DAC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li> <li>- 이에 따라, 글로벌 녹색 전환 모멘텀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녹색 분야 ODA를 확대하고자 하는 구상에서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동 전략은 △개도국의 여건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그린 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 확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li> <li>- 동 전략 추진 과정에서 개도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기타 대외 정책과의 정합성, ODA 사업 및 후속사업간 연계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임.</li> <li>- 아울러, 청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그린뉴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 이행과정에서 이 같은 측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li> </ul> <p><b>「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 관련 Q&amp;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에서 기후대응 등 녹색 분야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ODA 사업 자체에서 녹색 분야 사업을 주류화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ODA 전체를 그린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지?</li> <li>▶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이 녹색 분야 ODA 사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녹색 분야 ODA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리우 마커, 환경 마커 등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기여, 생물다양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사막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도록 구성되어 있음.</li> <li>- 즉, 이는 녹색 분야 ODA 사업 개수의 확대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 ODA 사업에서 환경적 측면을 더욱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봄.</li> <li>▶ 우리나라의 2019년 그린 분야 ODA 비중이 36.8%로 월등히 높은데, 이는 어떻게 도출된 수치인지?</li> </ul>

구 분	발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나, 동 연도 그린 분야 ODA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li> <li>▶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대해 토의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국외 감축과의 연관성 때문인데, 향후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이 국외 감축 실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코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으로 지득한 소식에 따르면, 산업부 등은 환경 분야 ODA 추진 실적을 국외 감축 사업과 연결시켜서 NDC 목표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 같은 논의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 내에서도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li> </ul> </li> <li>▶ 구체적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을 국외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속 부서 차원에서 산업부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는 ODA 실적이 국외 감축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이 국외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임.</li> </ul> </li> <li>▶ 일전에 개발협력 분야의 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개발협력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의 시각은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됨.</li> <li>▶ ODA 추진 과정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 내재화 노력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스크리닝 제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동 스크리닝의 질문이 매우 조악한 수준이며,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바, 스크리닝의 질문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li> <li>- 아울러, ODA를 대형화 하는 것- '늦었으니 빨리 가자' 등의 고려를 추진 기관으로서 하기 쉬울 것으로 보이나, 다목적 댐과 같은 대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임.</li> <li>- 참고로, 다목적 댐 등 대형 사업이 과거 CDM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형 사업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대형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li> <li>- 내년(2022년) 추진 예정인 그린뉴딜 ODA 유무상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li> </ul> </li> <li>▶ 우리나라의 ODA 실시 과정에서, KOICA와 수출입 은행을 통한 유무상 원조가 실시되고 있는데, 외교부와 기재부간 어떻게 조율 하고있는 것인지, 그린뉴딜 ODA는 두 기관간 통합성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이 궁금함.</li> </ul>

구 분	발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적으로 유무상 ODA 사업 관련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사업 전략 협의회를 월 1,2차례 개최하며, 사업간 협업 방안, 사전 연계, 사후 연계 및 패키지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음.</li> <li>- 유상 원조의 경우에도 그린 EDCF 추진을 위한 별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무상 원조의 경우에도 세부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내년도(2022년) 진행 예정인 사업은 확인이 필요하여 답변하기 어려움.</li>   <li>▶ 우리나라가 기후나 환경 측면의 ODA 사업을 적지않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향후 기후와 환경 분야의 성과가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li>   <li>▶ (ODA 사업이 아니지만)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REDD+와 같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탄소 배출 저감에 있는 경우 사업 추진 결과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한 사항 등이 파악 가능하나, 우리나라가 실시 중인 모든 ODA 사업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li>   <li>▶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을 간략히 소개해 주었는데,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든, 적응이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국가감축목표(NDC) 실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더라도 격년 보고서(bi-annual report)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즉, 그린뉴딜 ODA 추진은 궁극적으로 UNFCCC 기후협상 전체 흐름 및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산자부, 외교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우리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이 같은 국제협력 분과위원회의 제안 사항이 관계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요청함.</li>   <li>▶ 국무조정실의 설명과 더불어 Q&amp;A 세션을 진행한 것이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 및 추진 예산은 매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등 계기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제협력 분과위의 제안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함.</li> <li>-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이 국외 감축 실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바, 추후 분과위 개최 계기 동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함.</li> </ul>

구 분	발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뉴딜 ODA 추진 실적이 국외 감축 실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간 녹색 분야 협력추진은 매우 중요한 바, 이번 기회에 ODA 사업이 전체적으로 녹색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봄.</li> <li>- 예를 들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KOPIA)은 전세계 22개국에 파견되어 있는데, 동 22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농촌진흥청(KOPIA) 사무소와도 녹색 분야 ODA 또는 그린뉴딜 ODA 추진 관련 협력하고 있는지가 궁금함.</li> <li>▶ 농촌진흥청(KOPIA)의 주요 프로젝트는 농법 전수, 종자 개량 등 사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린뉴딜 ODA를 주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li> <li>▶ 녹색 분야 ODA 사업은 장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기대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으며, 농업은 결국 산림 등 이슈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KOPIA)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li> <li>▶ 김현권 위원의 발언 관련, 그린뉴딜 ODA를 확대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어떤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한 ODA 실적을 국외 감축 실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각 기관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li> <li>▶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국제 감축 사업을 심의, 사업 시행 현황 모니터링 등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동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지, 또는 기타 부처 산하 설립될 예정인지 여부를 문의함.</li> <li>- 아울러,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 내 청년 및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우리나라에서 과연 국제 개발협력 분야나 기후변화 및 환경을 목적으로 역량 개발 교육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며,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량 개발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li> <li>▶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업무 등의 지원 수요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행정적 업무 수요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매우 중요함.</li> <li>- 다수 국가 정책 내 '청년'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포함되지만, 이는 명목상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본적이고 정책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li> <li>▶ 지금까지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오늘의 발제 및 논의에서 전략적 측면 및 녹색 분야 ODA 관련 핵심추진성과(Key Performance</li> </ul>

구 분	발언요지
	<p>Indicator : KPI)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동 관련 소개가 없었던 측면이 아쉬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과는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페루와 스리랑카는 협정 체결 예정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 예정인 국가가 베트남, 페루, 스리랑카 3개국에 제한된 것인지, 또는 체결국을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코자 함.</li> <li>▶ 현재로서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 계획을 보유한 국가는 상기 3개국으로 알고있으며, 확대코자 노력 중임.</li> <li>-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산하 또는 어떤 부처 산하에 수립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고있는 사항이 없음.</li> </ul>

□ 안건 2호 : 2022년 국제협력 분과위원회 업무 계획

구 분	발언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5.29.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여,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 검토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다보니, 금년 분과위원회 운영은 구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해 왔음.</li> <li>- 명(12.15.) 개최 예정인 총괄기획위원회가 마지막 총괄기획위원회에 해당하는 바,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성과 및 2022년의 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청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li> <li>- 아울러, 금년도 업무 성과를 점검하며, 어떤 부분은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은 미흡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같은 부분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li> <li>▶ 금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6-7개월여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 검토 작업 등을 밀도있게 진행하여,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를 40% 수준에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을 뜻 깊게 생각함.</li> <li>- 2022년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협력 분과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하는 의제가 있는지 여부를 숙고 및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li> <li>- 아울러, 국제협력 분과위에는 청년 분과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UN 사무총장 산하에 청년으로만 구성된 자문그룹(advisory group)이 설치되어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li> <li>- 따라서, 국제 기후협력 관련 우리나라 청년들도 보다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요청될 것인 바,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국제협력 분과위에서 국제 기후변화 협력 관련 우리나라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함.</li> </ul>

구 분	발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COP26 계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실시하신 연설 중 청년 기후 서밋(Youth Summit) 연례 개최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제안이 COP26 결과에 반영되어, 내년부터 청년 기후서밋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된 바, 청년 기후서밋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되는 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봄.</li> <li>▶ 개인적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2번 참여 했는데, 동 참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COP에는 아시아 청년 및 한국 청년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은 기존 COP에 비해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 홍콩, 일본 등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뱃지 등을 많이 지원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함.</li> </ul> </li> <li>▶ 금년 COP26에 탄소중립위원 8명이 참석하였는데, 사전에 동 참가가 조율되거나 협의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의 활동 역시 조직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COP과 같은 해외 출장을 탄소중립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실시하게 된다면, 차기 출장에는 위원들의 참여 관련 사항이 사전에 조율되고, 현장에서의 활동도 '한국관'에서의 발표 실시' 등 조직적으로 계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li> </ul> </li> <li>▶ 총괄기획위원회 및 기타 분과위 회의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기타 회의에 참가해 보면, 국제협력 분과의 명확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 ODA나 개발협력 정도를 논의하는 분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부처 관계자를 섭외하여 설명을 듣고자해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향도 있음.</li> <li>- 탄소중립 기본법 및 시행령에 적시된 사항 중 국제협력에 가장 크게 관련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국외 감축 사업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 밖에도 분과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실시 필요한 업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li> <li>- 아울러, 내년 2,3월에는 탄소중립 기본 계획 및 국가전략 수립이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한 해에는 어떠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분과위원들께서 각자 고민하신 후 내년도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li> </ul> </li> <li>▶ 국제감축 관련 업무가 국제협력 관련 주요 업무인 것은 맞지만, 파리 협정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국외 감축은 국내 감축을 보완하는 성격이며, 국제감축 관련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UNFCCC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li> </ul> </li> </ul>

구 분	발언요지
	<p>전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감축 분야는 산자부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온실가스 국외 감축 등의 분야를 포함한 기타 국제협력 관련 이슈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더 많은 수의 국가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업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li> </ul> </li> <li>▶ 경제산업분과와 공동으로 개최한 EU의 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분과위원회 회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국외 감축 등의 분야 역시 통합 분과위 회의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 이 같은 유관 이슈에 대해 경제산업 분과와 국제협력 분과 등이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li> </ul> </li> <li>▶ 국제협력 분과 자체적으로 주요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국외 감축도 다른 분과위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협력 분과의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국제협력 및 소통, 탄소중립 위원회(committee)들간의 소통에 있어, 국제협력 분과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도 중요한 업무로 보이는 바, 이 같은 분야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li> </ul> </li> <li>▶ 유튜브에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지난 4월 세미나를 실시한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 등 기타 국가의 기후위원회 사례를 참고할 만한 자료는 많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차기 회의 관련, 금년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검토 등을 위해 월 2차례 분과위 회의를 개최했었으나, 내년의 경우는 분과위 회의 개최 빈도 등은 사무처 및 총괄기획위원회 의제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22년 1월 첫 분과회의 개최는 1월 4째주 화요일로 제안함.</li> </ul> </li> <li>▶ 2022년 1월 첫 분과회의 개최를 1.25.(화)에 개최하는 것에 동의함.</li> <li>▶ '22.1.25.(화) 분과위 개최에 동의함. 아울러, 다음 주부터 근무지를 옮기게 될 ClimateWorks Foundation은 국제 기후 분야 평가 시스템 구축 등 방면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차기 분과위에서 동 관련 발표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음.</li> <li>▶ 1.25.(화) 분과위 계기 박형건 위원께서 발표를 제안해 준 것을 환영하며, 차기 회의 계기 내년(2022년) 업무 계획 등에 대한 상세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함.</li> </ul>